

숲캉스 바람 타고 해남 흑석산휴양림 힐링여행지 부상

50ha 규모 치유센터 18개동 ‘숲속의 집’ 주말마다 조기 마감
이달부터 치유센터·치유의 숲·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운영

“숲속에서 하룻밤 몸도 마음도 가뭄다.”
신록이 아름다운 계절, 해남 흑석산자연휴양림이 건강한 힐링 여행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흑석산 자연휴양림의 숲속 숙박시설은 봄을 맞아 주말에는 모든 예약이 초기에 마감되는 것은 물론 평일에도 80% 이상 예약률을 보이는 등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다.
흑석산휴양림에는 2023년 신축한 10개 동을 비롯해 2~10인실의 ‘숲속의 집’ 18개 동과 4개 객실을 갖춘 휴양관이 조성돼 있다.
흑석산자연휴양림 숙박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예약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치유센터와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

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흑석산 자연휴양림에는 참나무류 군락지를 중심으로 50ha 규모로 치유센터를 비롯해 치유정원, 치유숲길 등으로 구성된 치유의 숲이 조성돼 있다.
치유의 숲은 음이온 발생량이 많은 참나무류 군락지를 중심으로 740m의 무장애 데크 길과 350m 흑(黑)돌길이 조성돼 휴양객들이 피톤치드 가득한 숲길을 걸으며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치유 숲길과 함께 올리브, 애기동백 등 27종 2만여 본이 심어진 치유정원도 조성되어 있다.
치유의 숲 내 위치한 치유센터는 이용객의 신체 상태를 측정하는 등 이용객들의 쉼의 공간으로 이용되며, 산림치유 지도사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치유의 숲과 유아숲체험원, 숲속놀이터 등을 활용한 살아 있는 자연 학습장으로 어린이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봄에는 도토리 보고, 여름에는 숲속 책 읽기, 가을에는 도토리 찾기 등 다채로운 야외 체험 활동으로 진행되는 산림 생태교육으로 인기가 높다.
2023년 조성된 숲속 놀이터는 목재 놀이시설과 맨발 놀이터 등 건강하게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특성화된 놀이터로 조성했다.
흑석산치유의 숲 체험은 누리집으로 사전 예약하면 이용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흑석산 자연휴양림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잊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힐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흑석산자연휴양림 치유숲 데크로드 트레킹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목포기독병원 로봇 인공관절 수술 시스템 도입

전남 서남권 종합병원 최초

목포기독병원은 전남 서남권 종합병원 최초로 첨단 로봇 보조 인공관절 수술 시스템인 ‘CORI 로봇 수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로봇 수술은 기존 수술과 비교했을 때 더 정교하게 뼈를 깎고, 인공관절 삽입 위치와 각도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어 수술 후 통증 감소, 빠른 재활, 인공관절 수명의 연장 등의 장점이 있다. 특히 고령이나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수술 방식이라는 게 목포기독병원 측의 설명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인공관절 수술의 정밀도는 물론,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가 가능해지며 지역 의료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형외과 성주형 과장은 “로봇 수술은 기존 수술과 비교했을 때 더 정교하게 뼈를 깎고, 인공관절 삽입 위치와 각도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어 수술 후 통증 감소, 빠른 재활, 인공관절 수명의 연장이라는 장점이 있다”라며 “특히 고령 환자나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수술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3D Pre planning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해부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수술 전 계획을 세우고, 실시간 센서와 내비게이션 기능을 통해 수술 중 정확도를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뼈의 불필요한 제거를 줄이고, 인공관절과 환자의 뼈가 정밀하게 결



로봇 인공관절 수술.

합하도록 돕는다.
김근호 대표원장은 “이번 로봇 인공관절 수술 시스템 도입으로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선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목포기독병원은 첨단 의료기술 도입과 의료진 역량 강

화를 통해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기독병원은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서 다학제 협진 체계와 최신 의료장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완도군, 36억 투입 숲속 야영장 조성...산림치유단지 첫 삽

“산림·해양 치유 명소로 추진”

완도군이 36억원을 투입해 산림 치유를 할 수 있는 숲속 야영장을 조성한다.
숲속 야영장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야영할 수 있는 시설로 임목과 벌채 등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 친화적이어야 한다.
전국에 조성된 숲속 야영장은 국립 3개소, 공립

10개소, 사립 32개소 총 45개소로 전남도에는 광양 구봉산, 순천 서면에 조성돼 있다.
완도군은 임야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완도만의 특색있는 산림휴양시설을 갖추고자 완도를 가용산 214-1번지와 1필지 7.9ha에 ‘산림치유단지’를 조성한다.
산림치유단지에 들어설 숲속 야영장은 전남에서 세 번째로 조성 승인을 받아 4월 중 착공할 예

정이다.
2026년 3월 운영을 목표로 추진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산림치유단지 내 숲속 야영장을 시작으로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산림 레포츠 시설 등이 잇따라 조성될 예정이다”며 “완도를 일대가 산림·해양 치유의 명소로 부상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재본부장 ejhung@

해남 ‘목포구등대 명소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해남군은 ‘목포구등대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남군의 주요 관광 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의 일환이다.
해남군은 목포구등대 일원에 예술의 등대 전시관, 해풍갤러리, 정원 등을 포함한 복합 문화 관광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1908년 축조된 목포구(木浦口)등대는 대한제국기 대표적 등대이자 이후 지어진 우리나라 등대의 기본적인 전형이 되는 등대이다. 지난 2008년 근대문화유산인 등록문화재인 문화재자료 제379호로 지정됐다. 지난 2003년 새로운 등대가 건립될 때까지 95년간 육지의 관문인 목포구의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
특히 목포구등대가 위치한 화원 월래 해안은 두 개의 등대를 배경으로 서해 바다의 환상적인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해남이 명소로 꼽히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광군, 영광형 기본소득 모델 개발 본격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

영광군이 ‘영광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영광군은 최근 실·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이번 연구는 기본소득 전문 연구기관인 기본소득연구소가 맡았으며, 오는 7월 말까지 영광형 기본소득 지급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군은 특히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공유부’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군민에게 나누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이다.
기본소득연구소는 보고회에서 국내외 기본소득 도입 사례, 과업 일정, 영광군의 특성을 반영한 시범모형의 설계 방향 등을 설명했다.
특히 영광군이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자산을 어떻게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신안군, 다이몬드 해역 내 수산자원 회복 박차

쥐노래미 10만 마리 방류

신안군이 지역 다이몬드 해역 내 수산자원 회복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안군은 오는 15일 군 해역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일환으로 쥐노래미 10만 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쥐노래미는 전장 5cm 이상이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염병 검사를 마친 건강하고 활력이 좋은 종자다. 해당 지선어촌계(어업인)와 함께 선상 방류를 할 계획이다.
방류해역은 2022년부터 5년간 50억원(연간 10억)이 투입되고 있는 쥐노래미 산란·서식장을 조성 중인 해역으로 지금까지 어초(563개) 투하

와 해조류(곰피, 다시마 등)를 집중적으로 이식해 해역으로 자원 회복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근 해역의 육도와 안좌 사자해역에도 2023년부터 5년간 40억원(연간 8억)을 투입, 조피불락 산란·서식장을 조성하는 등 다이아몬드 해역 내 수산자원 회복·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올해 년도 사업(사업비 18억원)이 본격 실행될 것”이라면서 “신안군의 중심해역인 이곳에 어초 투하, 해조류 이식, 종자방류 등 최적의 수산생물들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한 만큼, 향후 바다낚시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지난 11일 목포시의회에서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추진 연구모임’ 간담회가 열렸다.

목포시의회, 미식산업박람회 간담회

전문가 대거 참석...실무 전략 공유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추진 연구모임’(회장 유창훈)이 올해 9월 목포에서 열리는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의식업계 전문가와 실무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박람회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목포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외식업 연계 마케팅 전략, 국내·외 홍보 방안, 체험형 콘텐츠 구성 등 실무 중심

의 다양한 의견을 냈다.
정순태 SL F&B 대표, 김은주 세종대 조교수, 나길호 더케이치킨 대표 등 외식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은 남도 음식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세계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 기획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연구모임 회원들은 박람회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목포 미식 산업의 구조적 성장을 유도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단체 소속 9명 의원은 앞으로도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민 관심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세얼굴

“따뜻하고 신뢰받는 해양행정 펼치겠다”

채수준 목포해양경찰서장

“국민과 함께하는 목포해경 실현에 힘을 쏟겠습니다.”
최근 목포해양경찰서 29대 서장에 취임한 채수준 총경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채 서장은 “지역민과 함께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따뜻하고 신뢰받는 목포해양경찰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 출생인 채 서장은 서울에서 성장했으며, 경찰대(10기)와 미국 오리건대(법학석사)를 졸업했다. 2007년 경감으로 해양경찰에 입문해 동해청 경비안전과장, 주상파울루주 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 남해청 정보

외사과장, 울진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과장을 거쳐 해양경찰청 정보과장을 역임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